

소중함을 발견하는

미야기의 여행



인구 백만도시의 역사와 변화함을 즐기는 **센다이에리어**

일본삼경의 아름다움과 음식의 고향을 만족시키는 **마쓰시마에리어**

산과 고장의 풍부한 자연과 인정이 느껴지는
오사키 · 구리코마 · 도메에리어

리이스식 바다의 진미를 만끽하는
이시노마키 · 케센누마에리어

자연과 온천에서의 편안 휴식
시로이시 · 자오에리어



인구 백만도시의 역사와 변화함을 즐긴다

仙台 센다이 에리어

다테마사무네가 축성한 지 400년, 관동이북지역 최대의 성하층으로 번성한 역사적 도시. 아오바산과 히로세강의 자연을 살리면서 느티나무와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잘 정비된 「숲의 도시」이기도 하다. 맑은 공기에 둘러싸인 시내에서는 역사적인 장소를 비롯해 동서남북으로 길게 뻗은 쇼핑몰을 둘러보며 여유있는 쇼핑을 즐길 수 있다.



【仙台北城跡(仙台市青葉区)】

센다이성터(센다이시 아오바쿠)
센다이번주 다테마사무네공에 의해 아오바산에 축성되었다. 호마루터에서 시내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으며, 복원된 망루의 모습에서는 당시를 떠올릴 수 있다.



【瑞鳳閣(仙台市青葉区)】

다테마사무네의 영묘로서, 1637년 2대 번주 다다무네에 의해 건립. 호화찬란한 모모야마양식의 영묘건축으로서 국보로 지정되었지만 전화로 소실. 당시 모습 그대로 재건되었다.



【オサキハチマン구(仙台市아오바쿠)】

센다이번 시조 다테마사무네가, 센다이성의 북서 방향에 해당하는 이 지역을 잘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호화찬란한 모모야마건축의 특색이 보이며, 다테가문의 위상을 현대에 전하는 귀중한 건축물. 매년 1월14일의 마쓰타키제(돈토축제는)는 많은 참배자로 북적이며, 무병식재, 상업번성을 기원한다.



관광안내소 문의처

- 미치노쿠관광안내소(센다이공항내)
- 센다이시 관광정보센터(센다이역 구내2F)
- 센다이국제센터 교류코너

tel.022-383-6741
tel.022-222-4069
tel.022-265-2471



【센다이 우미노오리수족관(센다이시 미야기노쿠)】

2015년 7월에 개관. 산리쿠의 바다를 테마로 한 대수조나 히로세강의 환경을 모티브로 한 전시, 돌고래강치의 퍼포먼스, 펠린 등과 어울리는 체험과 같은 매력 가득. 1층 푸드 코र्ट도 병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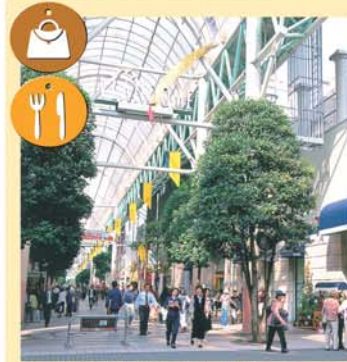
【루동센다이(센다이시 아오바쿠)】

센다이역에서 15~20분 간격으로 출발하는 관광순환버스. 박물관이나 센다이성터 등, 시내중심부의 관광명소를 효율적으로 돌 수 있다. ①회 승차권/어른: 260엔, 12세 미만 어린이: 130엔(1일 승차권/어른: 620엔, 12세미만 어린이: 310엔)



【센다이시박물관(센다이시 아오바쿠)】

다테가문으로부터 기증된 문화재를 비롯, 센다이에 관한 자료 및 9만점을 수집. 국보 「계초견교 사찰관계자료」 및 중요문화재인 다테마사무네의 갑옷은 필히 관람추천(전시시간은 확인요망)



【부란돔 이치반초 (ブランドム-一番町)】



【고쿠분초 (国分町)】

고쿠분초는 3000점포가 넘는 음식 점이 밀집한 도호쿠최대의 번화가. 음식점빌딩이 길 옆으로 늘어서 있으며, 주말밤에는 회사원 등 많은 사람들로 북적인다.



【三井アクトレック(仙台市青葉区)】

미쓰이 아울렛파크 센다이점 (센다이시 미야기노쿠)

상점과, 레스토랑을 합해서 약 120점포가 집결한 도호쿠지방 최대의 아울렛. 다채로운 맛을 즐길 수 있는 푸드 코र्ट와, 부지내에 높이 50m의 관람차도 설치. 가족 모두 하루종일 즐길 수 있는 쇼핑 시설.



【仙台七夕まつり(仙台市青葉区)】

센다이 다나바타축제(센다이시 아오바쿠)
다테마사무네의 시대부터 이어온 전통 행사로, 도호쿠 3대축제의 하나로 손꼽힌다. 중심부 아케이드가를 비롯 주변부 상점가에는 크고 작은 것을 합해서 3000개의 다나바타장식이 바람에 흔들리며 거리를 장식한다. 전야제인 다나바타불꽃축제도 많은 사람들로 붐빈다. 매년 8월6~8일에 개최. (전야제는 5일)



【센다이역내 S-PAL (仙台駅内S-PAL)】

쇼핑스트리트(센다이시 아오바쿠)
센다이역앞에서 이치반초, 조젠지도리부터 미나미마치도리에 이어지는 스트리트는, 6개의 아케이드로 된 일대 쇼핑몰. 또한, 역 주변에는 전자제품 양판점이 진출하여, 활기를 보이고 있다.



【호텔(센다이시)】

센다이역 주변에는 합리적 가격의 호텔에서부터 고급스러운 호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호텔이 위치해 있어 필요에 맞춰 호텔을 선택할 수 있다. 최근에는 천연연천수의 욕장이 있는 호텔도 찾을 수 있다.



【仙台プレミアム-アクトレック(仙台市青葉区)】

센다이이즈미 프리미엄 아울렛 (센다이시 이즈미쿠)

미국 동북부의 거리를 본뜬 건물로, 고급 브랜드나 잡화점포 80개 이상이 입점해 있다. 인접해 있는 "이즈미 파크타운 타피오"와 합하면, 160점포가 갖추어진 쇼핑 명소.



【仙台のハイパーストリート(仙台市青葉区)】

센다이 히라리노 페이렌트(센다이시 아오바쿠)
12월 상순~31일에 17시 30분~23시(31일만~24시), 조젠지도리와 아오바도리의 느티나무에 장식한 전구가 센다이의 밤하늘을 수놓는다. 18시, 19시, 20시의 3회, 약 1분간 소등하여 일제히 재점등하는 스타라이트 링크, 스타크로스의 북장 등으로 퍼레이드하는 산타의 숲 이야기 등 이벤트로 가득.

[秋保温泉エリア]
아키우온천에리어



아키우온천 (센다이시 다이하쿠쿠) 【秋保温泉】
나토리강의 계류와 주변의 산들이 사계절 마다 그 아름다움을 선보이며 많은 볼거리가 있는 도호쿠지방 제일의 온천지

아키우공예의 마을 (센다이시 다이하쿠쿠) 【秋保温泉】



아키우 대폭포 (센다이시 다이하쿠쿠) 【秋保温泉】
일본 3대 폭포의 하나. 높이 55m, 폭 6m의 박력있는 폭포의 조임으로 보는 사람들을 압도시킬 정도. 아키우대 폭포부동촌의 안쪽에 전망대가 있다. 그밖에 절 소까지의 산책로도 정비되어 있다.

[作並温泉エリア]
사쿠나미온천에리어



사쿠나미온천 (센다이시 아오바쿠) 【作並温泉】
센다이의 심볼-히로세강 상류에 있는 산간온천. 소박하고 고요한 온천정서를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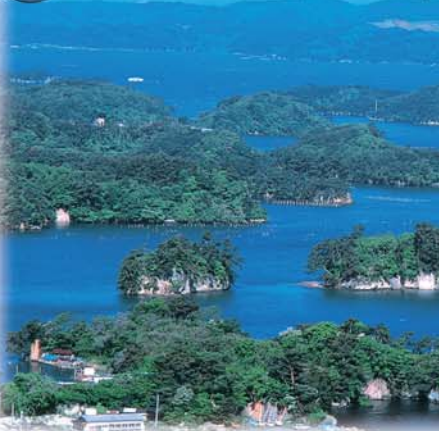


고구리쿠산 사이호지(조기노라이) (센다이시 아오바쿠) 【高古栗山】
인연맺을 및 자녀복에 효험이 있는 고찰. "조기노라이"는 여러분의 이름으로 친숙한 곳이다. 사할 앞에는 많은 상점이 위치해 있다.

하이쿠시인 마쓰오바쇼와의 깊은 인연, 그리고 일본 삼경의 아름다움과 다양한 음식의 고향

松島 마쓰시마 에리어

1689년 6월25일 마쓰시마를 찾은 바쇼는 본인의 기행문집인 「오쿠노호소미지」에 「마쓰시마는 일본 제일의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라고 적고 있다. 잔잔한 파도의 해안에는 260여개의 섬들이 산재해 있는데, 그 모습은 단연 「일본 삼경」에 손꼽히는 절경을 자랑한다. 달빛에 비친 모듬과 눈에 뒤덮인 모습 또한 아름다운 마쓰시마는 눈을 비롯한 다채로운 음식으로도 유명한 곳이다.



마쓰시마만관광 (松島灣観光)
마쓰시마만관광선 선착장을 출발 혹은 도착해 마쓰시마만의 섬들을 순회하는 주유코스를 비롯해, 시코스의 오가마까지 순회하는 정기관광선 등 다양한 관광선이 준비되어 있어 만년의 아름다운 섬들을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다.

관광안내소 문의처

● 마쓰시마관광협회

tel.022-354-2618



즈이간지 (국보) (마쓰시마마치) 【瑞巖寺】

헤이안시대부터 내려온 유서있는 선사사, 다테가문의 보리사로서 극진히 지켜오고 있다. 모모야마양식의 건축이 특징인 본당, 공양간 등은 국보, 오나라문, 중문 등은 국가중요문화재로 지정.



고다이도 (마쓰시마마치) 【五大堂】

807년, 사카노우에노타무라마로가 비사문헌을 모신 것이 시초라고 전해지는 마쓰시마의 심볼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 명소. 단층모형식의 건물이 서있는 작은섬에는 빨간 다리가 놓여 있다.



시오가마신사 (시오가마시) 【鹽竈神社】

오슈 제일의 신사로 12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며, 예로부터 존경받아 오고 있다. 현존하는 신사의 본당은 다테가문의 불남한 것. 국가 천연기념물이 시오가마벚꽃의 절정은 5월 상순.



다문잔 (시치가하마마치) 【多門山】

마쓰시마4대관의 하나인 경승지. 다문잔 전망광장에 주차하고 도보로 10분, 비사문당의 뒷쪽으로 펼쳐지는 경치가, 마쓰시마 4대관 중에서 「워관」이라고 불려지는 멋진 조망.



엔쓰인 (마쓰시마마치) 【円通院】

다테마사무네의 손자, 미쓰무네의 보리사. 영묘인 산케덴에는 미쓰무네상이 모셔져 있고, 그 옆에는 장이나 하트 등의 서양문양이 그려져 있다. 단풍의 명소이기도 하여, 라이트업도 하고 있다. 또한, 염주만들기 체험도 할 수 있다.



사가케 (히가시마쓰시마시) 【巖崎】

일본 3대계곡의 하나. 여성적인 마쓰시마경관과는 대조적으로, 태평양의 거친 파도와 비바람에 침식된 하얀 바위면은 거칠고 남성적이다. 유람선으로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



간란테 (마쓰시마마치) 【観音堂】

후시미성의 차실을 도요토미 히데요시로부터 다테 마사무네 공이 하사 받음. 2대 번주 다다무네 공이 피서와 달맞이의 장소로서 이축하였다. 박물관에서는, 다테가문 연고의 다이묘 도구 등 귀중한 자료를 전시. 또한, 녹차(과차 포함)를 마시면서 마쓰시마다운 경치를 즐길 수 있다.



시오가마수산물도매시장 (시오가마시) 【塩竈水産物卸売市場】
거대한 건물 안에 약120개에 달하는 점포가 들어선 대규모시장. 도매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이용가능하며, 신선한 어패류 및 수산물공품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시장내의 식당에서는, 구대한 생선회 등을 덮밥으로 맛볼 수 있다(조리는 불가).



초밥 (寿司)
산리쿠바다에서 잡아 올린 신선한 어패류를 재료로 한 초밥은 가까운 곳에 바다가 있으면는 미야기현의 자랑거리중 하나. 특히 집치어획한 일본제일을 자랑하는 항구도시 시오가마에는 평판이 좋고 유명한 초밥집이 많다.



굴 (かき)
미야기현은 전국 제2의 어획량을 자랑하는 굴의 산지. 마쓰시마를 중심으로 한 연안의 바다에서는 굴양식이 왕성히 이루어지고 있다. 마쓰시마만의 굴은 작지만 살이 통통해서, 맛이 응축되어 있는 것이 특징. (10~3월)



미치노쿠다테마사무네역사관 (마쓰시마마치) 【みちのく伊達政宗歴史館(松島町)】
다테마사무네의 생애를 200개의 남인형을 사용하여, 주요한 25장면을 재현한 시설. 또한, 다자이 오사무와 미야자와 겐지라고 하는 도호쿠의 위인들의 남인형 50개도 전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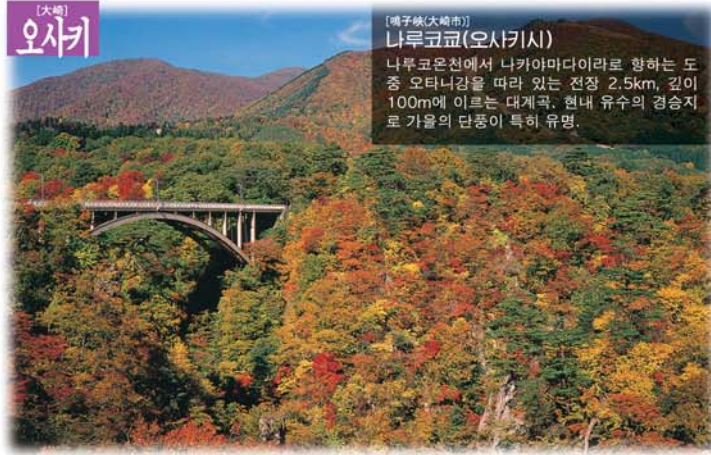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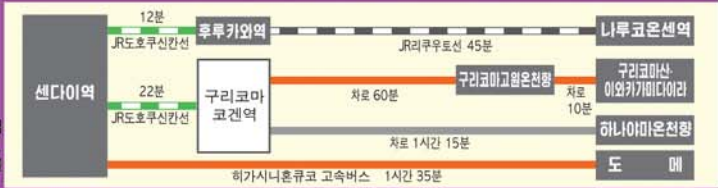


도호쿠역사박물관 (다카조시) 【東北歴史博物館(多賀城市)】
도호쿠의 역사와 문화의 발신지점으로서 개관한 체험형 뮤지엄. 구석기시대부터 현대까지의 도호쿠의 역사를 소개 하는 종합전시실, 특별전시실이 있다. 또한, 불 피우기 등의 체험도 즐길 수 있는 "어린이 역사관"도 있다.

산과 고장의 풍부한 자연과 인정이 느껴지는

大崎 粟駒 登米 오사키·구리코마·도메 에리어

미야기현의 북부지역은, 광대한 전원지대로 되어있어, 미야기 가운데에서도 특히 농림축산의 중심 지역이다. 쌀 및 채소재배를 제철한다든지, 지역의 공예 등을 제철하는 가운데 하는 가운데, 그 지역민과의 만남과 교류를 즐길 수 있다. 나루코, 히나야마, 구리코마로 이어지는 온천마을 역시 잊을 수 없는 곳이다.



[大崎] 오사키

[鳴子(大崎市)] 나루코코(오사키시)

나루코온천에서 나카야마다이라로 향하는 도중 오타니강을 따라 있는 전장 2.5km, 길이 100m에 이르는 대계곡. 현내 유수의 경승지로 가을의 단풍이 특히 유명.



[栗駒] 구리코마

[世界谷地原生花園(栗原市)] 세카이야치원생화원(구리하라시)

주위를 너도밤나무숲이 둘러싸고 있는 구리코마산의 남쪽 산록에 펼쳐진, 일본유수의 습원. 초여름에 습원 일대에 피는 넉코스게가 특히 유명.

나루코온천향 [鳴子温泉郷]

나루코온천(오사키시)

히가시나루코온천(오사키시) [東鳴子温泉(大崎市)]
 에도시대에는 센다이번의 영주온천도 만들어졌다. 탕치장으로서의 모습도 남아있다.

타카야마다이라온천(오사키시) [中山平温泉(大崎市)]
 나루코온천 제일의 수량을 자랑하는 온천. 「아름다운 피부의 온천」으로도 유명하다.

나루코온천(오사키시)
 에도시대 정비된 주요도로인 오수데와가이도의 주요 거점으로서 예로부터 번성해온 온천. 공동욕장이 2곳 있으며, 온천순례도 재미있다.

가와리바온천(오사키시) [川原温泉(大崎市)]
 나루코온천향의 원곡역할을 하는 온천. 예로부터 「각기 가와리바」라고 불리며 각기병에 효험이 뛰어난 광천질의 온천으로, 온천수량이 많은 것 또한 자랑거리.

오니코베온천(오사키시) [奥高温泉(大崎市)]
 일년내내 아홉도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풍부한 온천수량을 자랑하는 고원의 온천.

구리코마 고원 온천향 [くりこま高原温泉郷]

구리코마산의 중턱에서 솟아나는 온천수와, 히나야마계곡에서 솟아나는 온천수로 유명함.

- 하이루자루 구리코마 [ハイルザル-栗駒]
- 아라유온천 구리코마소 [新湯温泉くりこま荘]
- 고야노유온천(당밀차기 온천) [駒の温泉(白糖り温泉)]
- 유바미온천 미우리어관 [湯浜温泉三浦御殿]
- 히나야마온천 누루유산장 [花山温泉湯山荘]

구리코마산(구리하라시) [栗駒山(栗原市)]
 미야기, 아키타, 이와테의 3현에 걸친 표고 1627m의 수려한 산. 가족등산코스도 있으며, 산 정상에서는 갓산, 자오연봉, 태평양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너도밤나무의 원생림은 신록과 단풍의 계절에 무척 아름답다. 단풍의 절정은 9월 중순~10월 하순.

일본고게시관(오사키시) [日本小唄館(大崎市)]
 도호쿠 각지의 전통 고게시인형 약 5000점을 전시하고 있다. 고게시인형 공인의 제작 모습을 견학실연을 견학할 수 있는 것을 비롯, 고게시인형 색칠하기 체험도 할 수 있다. 1~3월은 휴관.

구 유비관(오사키시) [旧有備館(大崎市)]
 구 유비관은, 에도시대에 이와테야마다테가문의 별채-은거장소로서, 2대 무네토시의 때에 세워졌다. 그 후, 가신들의 자제를 교육하기 위한 학문기관으로 사용되었다.

도메 [登米]

미야기의 메지무라(도메시) [米町の梅地村(登米市)]
 에도시대에는 도요마데 씨의 성하촌으로서, 메이지유신 이후에는 배를 이용한 기타카미강의 화물운반지역으로 번성한 도메시 도요마치. 교역자료관 및 경철자료관 등 서양식 건축물이 점재하여, 옛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 무사가옥을 이용한현탄테에서 지도 마실 수 있다.

그 밖의 에리어 [その他のエリア]

아쿠라이고원(가미마치) [アクリイ高原(加美町)]
 수려한 모습에서 「가미후지」라고도 불리는 아쿠라이산. 그 산록에 펼쳐진 아쿠라이고원은, 노천탕을 갖춘 온천시설을 비롯, 온천을 이용한 풀, 플라워가든, 골프장, 파크골프장, 스키장 등의 레저시설이 위치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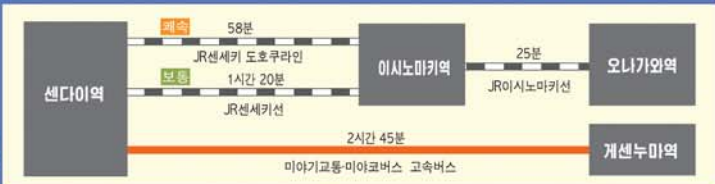
덴포로망관(와쿠야초) [天保羅門館(和歌谷町)]
 749년에 일본 최초의 선금산출지에 세워짐. 관내에는 일본 제일의 천연 금과 사금채취 체험장 외에 직매장과 레스토랑도 병설되어 있고 대회에 이용할 수 있는 황금 다실 「구가네담」이 인접해 있다.

현 북부의 호수와 늪(도메시·구리하라시·오자키시) [県北部の湖沼(登米市・栗原市・大崎市)]
 미야기현 북부에 위치하는 이즈누마, 우치누마, 가부쿠리누마 늪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로 람사 조약에 등록되어 있다. 일본에서도 유수한 칠새 월동지. 이즈누마에는 여름이 되면 연꽃이 아름답게 핀다.

리아스식 바다의 진미를 만끽하는

石巻 気仙沼 **이시노마키·게센누마** 에리어

이시노마키에서 오가반도, 미나미산리쿠, 그리고 게센누마로 이어지는 미야기현의 해안선, 복잡한 지형이 다양한 경관을 만들어 내며 특유의 바다의 진미가 모이는 장소로 유명하다. 이시노마키·긴카산지역에서는 멧개 및 멧개, 곰지, 미나미산리쿠·게센누마지역에서는 상어지느러미, 잡지, 전복 등 식도락의 즐거움은 끝이 없다.



이시노마키

〔石ノ森萬画館(石巻市)〕
이시노모리 만화관(이시노마키시)
「사이보그009, 「가면라이더」 등, 만화가이시노모리 소타로가 만들어 낸 인기 캐릭터를 만날 수 있는 뮤지엄. 관내에는 도서 영상 라이브러리도 잘 갖추어져 있다.

©石森章太郎 石巻プロ



게센누마

〔巨峯・半道(気仙沼市)〕
오가마·한조 (게센누마시)
가라쿠와반도의 동쪽에 있는 두개의 곳. 오가마의 「오래이시」, 는 큰 불거리, 해수의 침식에 의해 형성된 대리석의 기암, 괴석이 이어진다.



〔旧津島 船具展示場(이시노마키시)〕
미야기현 게조사절선유지장(이시노마키시)
번정시대 하세쿠라 쓰네키가 일행을 태우고 태평양을 항해한 게조사절선, 산 환 바우티스타의 복원선을 전시.

〔金嶺山(石巻市)〕
긴카산(이시노마키시)
주위 약 26km의 신앙의 섬으로, 원시림에는 원숭이 및 사슴이 서식. 중턱에 있는 고가네야마신사, 도호쿠 3대영지의 하나로 손꼽힌다.



〔旧津島 島の湯(石巻市)〕
다시로지마섬 고양이섬(이시노마키시)
다시로지마섬에서는 고양이는 풍어를 불러오는 좋은 동물로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고양이를 소중히 여겨 왔다. 고양이를 모신 「고양이 신사」도 있고 「고양이신」이라 불리며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섬 곳곳에서 고양이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고양이를 보기 위해 섬을 방문하는 관광객도 많다.

〔神前崎(南三陸町・石巻市)〕
가미와리자카(미나미산리쿠초·이시노마키시)
신이 절벽을 둘로 쪼개다고 하는 전설이 남아있는 경승지. 절벽 사이로 거센 파도가 세차게 흘러드는 모습은 압권.



〔香取山(気仙沼市)〕
도쿠센조산(게센누마시)
표고 711m, 현재 최대규모라고 일컬어지는 산철쭉과 연화철쭉의 대군락지. 5월 중순~6월 상순에 걸쳐 절정을 맞이한다.

〔岩井崎(気仙沼市)〕
이와이사키(게센누마시)
산리쿠부흥국립공원의 최남단에 위치한 곳. 다이나믹하게 해수를 뿜어내는 해수분출바위로 알려져, 파도가 거친 썰물 때에는 더욱 활기차게 바닷물을 뿜어 올린다.



〔アリス・アーク美術館(気仙沼市)〕
리아스 아크 미술관(게센누마시)
2013년 4월에 새로 상설전시 「동일본대진재 기록과 쓰나미 재해사」를 추가하여 풀 오픈. 진재 기록과 기억을 더듬는 자료를 통해 쓰나미재해와 지역의 역사 등을 알기 쉽게 소개한다.

〔復興商店街(이시노마키시·게센누마시·오니가와초·미나미산리쿠초)〕
부흥상점가 (이시노마키시·게센누마시·오니가와초·미나미산리쿠초)
동일본대진재로 폐쇄한 연안부의 상점가가 가설점포에서 영업을 재개하고 있다. 어패류 등 지역 특산의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한 음식점에서의 류 등 일용품들을 취급하는 상점까지 다양한 점포가 있다. 부흥상점가에서 쇼핑을 하는 것도 피해지 지원의 한 형태.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石巻・気仙沼の漁港〕
이시노마키·게센누마의 어항
산리쿠해안은 바다에서 나는 진미의 보고. 이시노마키·오시카반도해역은 세계 3대어장이라고 불리는 긴카산어장이 위치한 곳으로,가다랑어·고등어 등 「긴카산브랜드」를 어획하고 있다. 멧개, 고래도 유명하다. 한편, 게센누마에서는 생산량 일본 제일의 상어지느러미를 비롯 참치 등이 어획되고 있다. 각지의 수산시장에서는 신선한 어패류가 판매되고 있는데 꼭 한번 둘러보고 싶어지는 곳이다.



〔フカヒレ(気仙沼市)〕
상어지느러미(게센누마시)
게센누마시는 고급 중화요리의 식재료로 되면 각지의 시장에는 신선하고 기름이 오른 품치가 진열된다. 스무구이는 물론, 대마로 상어지느러미요리를 맛볼 수 있는 것은 있다.



〔サンマ(女川町, 気仙沼市)〕
꿈지(오니가와초, 게센누마시)
오니가와항과 게센누마항은,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꿈지 여취항을 자랑한다. 가을이 되면 각지의 시장에는 신선하고 기름이 오른 품치가 진열된다. 스무구이는 물론, 생선회로 먹을 수 있는 것은 양쪽항구만의 특권.

〔ホヤ〕
멍개
바다의 파인애플이라고 불리는 멧개는, 봄부터 여름에 걸친 산리쿠의 진미. 독특한 풍미가 있어 식초를 이용한 요리나 회로 그 맛을 즐길 수 있다.



白石王 시로이시·자오 에리어

센다이변주·다헤마사루에 제일의 중산·가라쿠라 고주로의 성하촌로 건설된 시로이시. 우멘, 와시라는 일본전통종이, 고게시인형 등, 그 무렵부터 내려오는 출신이 명물로 자리잡고 있다. 서쪽으로는 시치카슈쿠, 북쪽으로는 오가와라, 시바라, 동쪽으로는 마루모리 등의 역사적인 지역과 이어지는 곳으로, 자오산록의 자연 속에서 느긋하게 온천을 즐길 수가 있다.

JR도호쿠선	20분	미야코버스	1시간 12분	JR도호쿠선	차로 1시간	자오코타산정
	JR도호쿠신칸선	도갓타운천행 8분	도갓타운천행 25분		차로 20분	아오네온천
48분		JR도호쿠선		20분*		오바라온천
		시로이시시민버스 후쿠오카선 20분*		※(평일만 운행)		가미사키온천



자오/오카마(자오마치) [藏王/御釜(藏王町)]
자오의 심방이기도 한 화구호. 주위 약 1km 수심 약 25m 태양빛의 상태에 따라 하루에 몇번씩이나 수면 색이 변화하여 「고사키누마」 즉 「오색의 늪」이라고 불려지고 있다.



자오의 고산식물(자오마치) [藏王の高山植物(藏王町)]
자오에서는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고산식물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핑크 색의 조그마한 꽃을 피우는 고마쿠사 군락지로 유명하다.



나노카하라고원(자오마치) [七日原高原(藏王町)]
자오산록에 펼쳐진 고원. 광대한 육장지대가 펼쳐지고, 소들이 한적하게 풀을 뜯는 모습을 즐길 수 있다. 신선한 우유를 사용한 유제품은 선물로도 인기. 또한, 우유짜기나 유제품만들기의 체험도 할 수 있다.



도갓타온천(자오마치) [湯河田温泉(藏王町)]
공동욕장이 2개 있고, 탕치정으로도 인기가 높다.
가미사키온천(시로이시시) [鎌先温泉(白石市)]
오우의 약탕으로 알려져 있으며, 외산이나 신경통에 효과가 있다.
오바라온천(시로이시시) [小原温泉(白石市)]
시로이시시 상류의 풍경이 아름다운 계곡을 바라보는 역사 깊은 온천. 눈병에 좋은 온천으로도 유명.
가미온천(가와사키마치) [鏡ヶ温泉(川崎町)]
해발 850m의 자오산중에 있는 한 채의 독립온천. 예로부터 일본 3대 위장병 온천으로 알려져 있다.
아오네온천(가와사키마치) [青根温泉(川崎町)]
산간부에 있어 멀리 태평양도 바라볼 수 있는 뛰어난 조망이 매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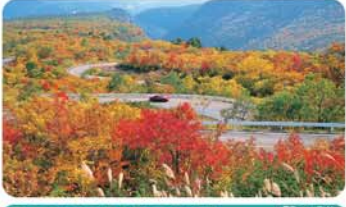
우멘(시로이시시) [温麺(うーめん, 白石市)]
일본전통종이인 와시, 찰과 함께 「시로이시 삼백」이라고 절찬받아 온 시로이시 명물의 면요리. 위장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위해, 기름을 쓰지 않고, 밀가루와 소금 물로 면을 만든 것이 시초로, 따뜻한 배려로 만들어진 것에서 온면이라는 뜻의 「우멘」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소화에 좋고, 자양이 풍부하며, 독특한 풍미가 매력. 온면, 냉면 어느쪽으로도 드셔도 맛이 있다.



이로헤센벚꽃(오가와라마치·시바라마치) [二戸千本桜(大川町・新庄町)]
오가와라마치와 시바라마치의 중양을 흐르는 시로이시강의 제방에, 약 8km에 걸쳐서 이어지는 벚꽃가로수. 개화하는 계절에는 라이트업이 되는 것은 물론, 벚꽃축제의 명소이다.로 불린다.천내 유수의 벚꽃 명소.



수선화축제(자오마치) [水仙花祭(藏王町)]
미야기자오에보시스키장은, 봄에는 수선화의 명소가 된다. 슬로프 전체가 완전히 꽃으로 덮이며, 4월 하순~5월 중순에는 수선화축제가 열린다.



자오에코라인(자오마치) [ekologo (藏王町)]
전장 26km의 산악관광도로. 자오의 웅대한 경관 사이를 달리는 드라이브는 상쾌함 그 자체.



주호(자오마치) [雪洞(藏王町)]
주호(별명:스노몬스터)는 수빙을 말하는 것으로, 아오모리분비나무가 자생하고 있고, 지형 및 기상상태라고 하는 몇가지의 조건을 충족한 장소에서 밖에 볼 수 없는, 매우 진귀한 자연의 예술. 미야기자오스미카와스노파크에서는, 설상차 「와일드몬스터」로 신비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다.



시로이시성(시로이시시) [白石城(白石市)]
다테가문의 중산·가라쿠라 고주로의 거성. 1995년, 일본 고래의 건축양식에 근거, 역사적 사실에 충실하게 복원되었다. 천수각에서 자오연봉이나 시가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국영 미치노쿠모리노코한공원(가와사키마치) [国営みちのくもり野公園(川崎町)]
가마후사담 호반에 있는 국영공원이다. 계절의 꽃들이 피는 이로도리노 광장과 도호쿠 6현의 옛날 민가가 있으며 다채로운 레저를 즐길 수 있다.



고게시인형(자오마치·시로이시시) [高木人形(藏王町・白石市)]
도호쿠지방 고유의 향토원구인 고게시인형은, 각 지역마다 형태나 표정, 모양에 특징이 있다. 도갓타계 고게시인형(자오마치)은 몸통에 손으로 그린 국화나 매화의 꽃무늬와 상냥한 표정이 특징. 아자리계 고게시인형(시로이시시)은 폭이 넓은 녹로(동례)선과 베리모를 쓴 것 같은 머리가 특징. 직접 그리며 체험할 수 있는 시설도 있다.



여우 마을(시로이시시) [キツネ村(白石市)]
자연이 풍부한 여우 마을에서는 많은 여우들이 자연 속에서 방목되고 있다. 직접 만져보고 먹이를 줄 수 있다.

미야기의 스키장



- 미야기자오에보시스키장(자오마치)
- 미야기자오스미카와스노파크(자오마치)
- 미야기자오센트메리스키장(가와사키마치)
- 미야기자오시로이시스키장(시로이시시)
- 미야기자오시치카슈쿠스키장(시치카슈쿠마치)
- 오노코베스키장(오사키시)
- 우에노노스키장(오사키시 나루코온천)
- 야쿠라이패밀리스키장(가미마치)
- 스프링 밸리 이즈미코겐스키장(센다이시)
- 이즈미가타케스키장(센다이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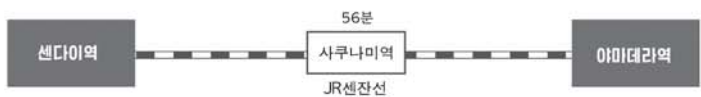
더욱 자세한 미야기현의 여행정보를 인터넷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미야기현 관광연맹
http://www.miyagi-kankou.or.jp/tourist_infomation/
- 미야기현 관광과
<http://www.pref.miyagi.jp/kankou/>

미야기 주변의 볼거리

아미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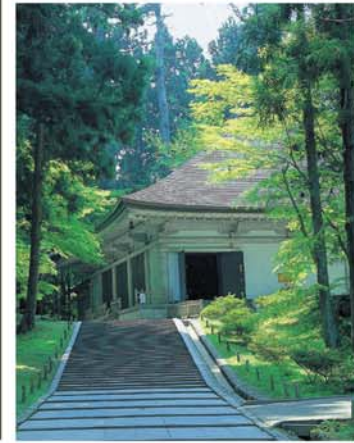
아미데라(호주산 릿사쿠지)는, 860년에 지카쿠대사 엔닌이 창건한 영험한 사찰로, 52만평의 경내에는 깊고 신성하다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경경이 펼쳐진다. 국가지정 명승·사적으로 되어 있다.



아미데라(아미가타시) [산주(山形市)]
1689년 7월 13일에 방문한 바쇼는, 「한적함이며 바위에 스며드는 매미의 울음」이라고 읊었다. 산문을 들어서면, 옹위암의 바위에 1015단의 돌계단이 바위에서 뻗어나온 듯 이어지며, 다리도 얼어붙을 것 같은 아찔한 고다이오에서는 웅대한 경관과 절한 눈에 조망할 수 있다.

히라이즈미

히라이즈미에는, 불교 가운데서도, 특히 정토사상의 가치관에 입각해 만들어진 다양한 사원·정원 및 유적이 한 무리로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고, 2011년, 「히라이즈미 - 불국토(정토)를 나타내는 건축·정원 및 고고학적 유적군」으로 세계유산에 등록되었다.



모쓰지(히라이즈미초) [毛越寺(平泉町)]
추손지와 어개를 나란히 하는 것이 모쓰지. 같은 해인 850년에 지카쿠대사 엔닌이 창건했으며, 당시에는 담탑 40, 승방 500을 헤아렸다고 한다. 가람 유구와 정토정원은 거의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다. 국가지정 특별사적·특별명승.
추손지(히라이즈미초) [中尊寺(平泉町)]
히라이즈미문화의 중심이 되는 것이 추손지. 850년에 지카쿠대사 엔닌이 창건한 정토로, 참배로에 수렴 수백년의 삼나무가수가 이어진다. 전면 금박칠의 곤지키도에는 후지와라 3대의 유해도 안치되어 있다. 세계유산.

미야기의 물산

미야기현에는, 오랜 역사와 풍토 가운데 계승되어 온,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뛰어난 공예품이 있습니다. 또한 일본 유수의 곡창지대와 풍부한 수산자원의 혜택을 받고 있는 미야기현은, 자연의 풍토를 살린 수많은 식품과, 서민생활에서 만들어진 전통의 맛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고케시인형 [こけし人形]
소박하고 귀여운 표정을 보이는 고케시인형. 현대에는 나루코, 도갓타, 아지로, 사쿠나미, 히지오리의 계통이 있다.



마쓰카와다마·센다이하리코 [松川だま・仙台菓子]
번성시대에 하급무사의 부업으로 만들어졌다. 하리코에는 가면을 비롯, 부드러운 점감의 호랑이와 쌀섬을 진 소, 말 등 소박한 완구가 있다.



센다이시로 [仙台西餅]
에도시대말기에 센다이에서 태어난 실존 인물. 그가 들르는 가게는 반도시 상업이 번성한다고 알려져, 목의 신으로 친근해졌다. 장식품이나 소원을 비는 에마역자 등 다양한 상품이 팔리고 있다.



다마무시누리 [玉虫塗]
쇼와시대초기에 고안된 공예품으로, 옷칠 면에서 부각되는 섬세한 도안이 특징. 밑에 뿌리는 은가루가 비단발레의 날개와 같은 광택을 빛낸다.

쓰쓰미인형 [つづみ人形]
순박한 모습이 매력인 토기인형으로, 원래는 무사들의 부업으로 만들어진 것. 가부키나 우키요에 등을 모티브로 했으며, 우아한 정취가 느껴진다.



오가쓰버루 [越前焼]
이시노마키시 오가쓰지구는, 현참석이라고 불리는 돌의 산지. 벼뚜껍은 약 600년의 역사가 있으며 현재는 국가지정 전통공예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센다이장롱 [仙台簞籠]
느티나무 무늬를 살린 기지로 침과, 사자형상을 틀을새김으로 한 침금구 등, 숙련된 장인의 정성된 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지는 최고급품. 견고함과 견조함이 특징으로, 사용하면서 할수록 감촉이 더 좋아진다.



센다이시이췌 [仙台椎茸]
붉은 옷칠을 몇번이고 덧칠하여 만들어 내는 조각질 기로, 정교한 디자인이 중후한 감을 연출한다. 내열·내수성도 뛰어나다.



마쓰카사품경 [松笠風鈴]
1780년대경, 음색이 좋은 풍경을 소망했던 센다이번주에게 현상한 것이 시작. 주물의 거칠거칠한 표면에 무수한 구멍모양이 있으며, 아름답고 독특한 음색의 여운이 특징.

일본술 [日本酒]
맛 좋은 일본 술 만들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질 좋은 쌀과 깨끗한 물. 그렇기에 미야기의 술(일본술)은, 맛중기로 평판이 있다. 선물로도 인기가 좋다.



센다이 다가시 [仙台駄菓子]
서민들의 생활 가운데서 자연발생적으로 태어난 여러가지의 다가시. 색이나 모양도 각양각색으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귀여운 모양과 자연의 소재가 빛어내는 따뜻한 이 넘치는 과자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과자 중에서도 명품이다.

즌다모치 [ずんだもち]
삶은 콩을 정성스럽게 으개서 고물로 하여, 떡에 문헌 센다이의 명물. 풋콩의 풍미와 단맛이 매치되어, 독특한 맛을 낸다.



사사카마 [笹かま]
옛날, 홍살치나 넘치 등 고급 흰쌀 생선을 으개어 그 어육을 조리대일 모양으로 구워낸 것에서 이름이 붙여졌다. 신선한 원료를 엄선하여, 정성스럽게 구워낸 일품의 수산가공품.



추천!
센다이역 출발

미야기의 모델 코스



센다이 · 마쓰시마 관광 코스

AM

JR센다이역→
JR센세키선으로 약40분→
JR마쓰시마카이간역 하차→
마쓰시마 관광(고다이도,
엔쓰인, 즈이간지 등)→
JR마쓰시마카이간역 (JR
센세키선에서 약40분)→
JR센다이역→시내에서 점심



마쓰시마만

PM

루플센다이로 센다이시 중심부 관광(즈이호덴, 센다이성터, 오사키하
치만구 등)→JR센다이역



루플센다이



센다이성터 (마사무네 기마상)

마쓰시마 유람선 · 센다이 시내 숙박 코스

AM

JR센다이역→(JR센세키선에서 약40분)→JR마쓰시마카이간역 하차→
마쓰시마 유람선(고다이도, 엔쓰인, 즈이간지 등)→마쓰시마만 크루즈→(소요
약50분) 마린게이트 시오가마 하차→시오가마 시가지 관광(시오가마산사,
이온타운 시오가마 등, 초밥 등의 점심)



마쓰시마만 크루즈



시오가마신사

PM

JR혼시오가마역→(JR센세키선에서
약10분)→JR나카노사카에역 하차→
도보 10분→
미쓰이 아웃렛 파크 센다이항→
도보 10분→
JR나카노사카에역→(JR센세키선에서
약20분)→
JR센다이역→
센다이 시내에서 숙박(센다이 시가지,
아키우온천, 사쿠나미온천)



아키우온천

마쓰시마 · 나루코온천 숙박 코스

AM

JR센다이역→
(JR센세키선에서 약40분)→
JR마쓰시마카이간역 하차→
마쓰시마 관광(고다이도,
엔쓰인, 즈이간지 등)→
마쓰시마에서 점심



고다이도

PM

JR마쓰시마카이간역 (JR센세키선에서 약40분)→JR센다이역(도호쿠 신칸센
으로 약15분)→JR후쿠와키역 환승→(JR리쿠우토선으로 약40분)→JR나루코온
천역 하차→나루코온천에서 온천가 산책, 온천 입욕→나루코온천에서 숙박



나루코쿄



나루코온천향

차로 가는 시로이시 지오 · 도갓타온천 숙박 코스

AM

센다이시 중심부→센다이 미야기 IC→
(소요 약30분)→시로이시 IC→
(소요 약10분)→시로이시시 중심부 관
광(시로이시성 견학, 갑옷 시착 체험,
시로이시 온천으로 점심 등)→(소요 약
30분)→자오 에코라인→(소요 약40분)
→자오·오카마



오카마

PM

(소요 약40분)→도갓타 온천가 산책(온천 입욕, 온천가 산책 등)→시로이시시
주변 온천지 숙박(도갓타온천, 가마사키온천, 오바라온천, 아오네온천)



시로이시성



오바라온천

●미야기현관광에 관한 문의처

미야기현 관광정보발신센터 ☎980-8570 센다이시 아오바쿠 혼초 3-8-1 tel.022-211-2822 fax.022-211-2829 E-mail Kankou@pref.miyagi.jp
미야기현 도쿄사무소 관광물산서비스센터 ☎170-0013 도쿄도 도시마쿠 히가시이케부쿠로 1-2-2-2 미야기후루사토플라자내 tel.03-5956-3591 fax.03-5956-3513
미야기현 오사카사무소 ☎530-0001 오사카시 기타쿠 우메다 1-3-1-900-9 tel.06-6341-7905 fax.06-6341-7906
미야기관광정보센터 ☎060-0052 삿포로시 주오쿠 미나미니조 히가시 1-1-12 후라테 삿포로 5층 506호 tel.011-223-1155 fax.011-223-1156

